

#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



2020. 1. 29

한국금융연구원

이재연

---

# 목차

- 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- II.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- III.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

# 1. 금융그룹화 배경

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


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로 동종 및 이종업종 간 결합이 증대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증대하는 추세

- 전 세계적 자율화 및 개방화의 확대에 따라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국경을 넘는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간 인수·합병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
- 이에 따라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는 물론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
-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수요의 변화, 금융기술혁신, 겸업화의 확대 허용 등 규제완화는 이종업종간 결합을 촉진시켜 복합금융그룹(financial conglomerate)의 출현을 가속화 (유럽에서 90년대 들어 방카슈랑스 확산)



## ■ 금융그룹화 장점

- \* 그룹내 회사간 기반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
- \*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
- \* 이종업종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상품개발
- \* 경쟁력 확대 – one stop shopping

## 2. 국내 금융그룹 유형

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


### 3. 해외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동향

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


선진국은 일찍부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금융그룹 감독 수준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

#### Joint Forum

BCBS(은행), IOSCO(증권), IAIS(보험)은 1996년 Joint Forum를 설립해 1999년 및 2012년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 제시

#### 유럽

EU의회에서 2002년 "복합금융그룹지침"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회원국들로 하여금 법제화를 추진토록 요구

#### 일본

금융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"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지침(안)"을 발표하고 감독·검사간 연계강화

#### 호주

2015년부터 APRA(건전성감독청) 감독기준 시행

## 4. 국내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

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


### 국내 논의 동향 및 성과

- 2006년 복합금융그룹 감독 논의 시작
-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계기, 통합감독 필요성 재조명
- 2015년 정부의 금융감독 선진화 과제로 통합감독 추진
- 2016년 세미나, 업계간담회 등 개최
- 2017년 국정과제 (24) 채택
- 2017년 공청회, 토론회 개최
- 2018.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
- 2018.4월 모범규준 초안 공개
- 2018.6월 '금융그룹 통합감독' 모범규준 확정
- 2018.6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발의(박선숙의원 대표발의)
- 2018.7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고 시범 운영 개시
- 2018.11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- 2019.5~6월 전이위험 모의 평가 실시
- 2019. 7월 모범규준 개정·연장(1년 연장 및 대표회사권한 삭제 등)

---

# 목차

- 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- II.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- III.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

# 1.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관

Ⅱ 금융그룹 감독제도 주요 내용

## <제도 개요> 금융그룹 전체 차원의 다양한 금융위험을 감독

- 금융그룹 감독 제도의 **법제화** 추진
  - 현재 박선숙 의원案('18.6.29) 및 이학영 의원案('18.11.16.)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
- 법 제정·시행 이전까지 **모범기준**을 통해 시범운용 실시 ('18. 7. 2~)
  - 자본적정성 및 위험관리 등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
  - 금융그룹별 위험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, 컨설팅, 교육 등 실시

### 현행 금융그룹 감독제도 주요내용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            | •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평가        |
| • 대표회사 선정                   | •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      |
| •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(집중·전이위험 반영) | (내부거래 점검·관리, 보고, 공시 등) |



## 2. 감독 방안(모범규준) - 감독대상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### 감독대상 선정기준

- ① 은행(여수신)·보험·금융투자업 중 **최소 2개 권역**의 금융회사
- ② 금융자산합계가 **5조 원 이상**인 대형 복합금융그룹
- ※ 현행 법규상 통합감독이 가능하거나 은행업 비중(90% 이상)이 높아 필요성이 낮은 경우  
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 (금융지주, 은행모회사 그룹, 특수은행, 실질적 동종그룹 등)
- ※ (19.7월 개정)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 사유에 추가

- '18년 7월 시범 운영 개시 시점 **총 7개 복합금융그룹**이 감독대상 기준 충족
  - ☞ 7개 금융그룹은 국내 금융회사(회사 수 2,505개, 총자산 4,901조원)와 비교 시 금융회사 수는 42개로 2.0%, 총자산은 912.2조원으로 18.6%
  - 금융모회사그룹(2개) : 미래에셋, 교보생명
  - 금산결합 금융그룹(5개) : 삼성, 한화, 현대차, DB, 롯데그룹 내 금융그룹사

- '19년말 현재 **총 6개 복합금융그룹**이 감독대상 기준 충족
  - 롯데금융그룹 제외('19.11월 롯데손해보험 및 롯데 카드 매각)

### 3. 감독 방안(모범기준) - 자본적정성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#### (자본적정성)

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: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[적격자본]을  
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[필요자본] 이상으로 유지

$$\text{※ 자본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①자본합계 - ③차감항목)}}{\text{필요자본 (②최소요구자본 + ④추가위험가산항목)}} \geq 100\%$$

적격자본 (① - ③)	필요자본(② + ④)
<p>① 업권별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자기자본 합계 비규제대상 :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합산</p> <p>③ 차감항목 : 자본 과다계상하는 가공자본 금융계열사 간 출자액 : 전액차감 상호·순환·교차출자 등 :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</p>	<p>②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 비규제 금융회사 : 대안지표(proxy)로 산출한 최소 요구자본 (총자산의 8%)</p> <p>④ 추가위험 가산 항목: 집중위험(금융그룹 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) 전이위험 : 전이위험 평가등급(1-5등급)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 (총위험자산의 0.5-2.5%, 필요자본의 5-25%)</p>

## 4. 감독 방안(모범기준) – 자본적정성(집중위험)

II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**집중위험은 금융그룹의 노출된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이며, 높을수록 더 많은 필요자본을 요구**

### • 집중위험의 유형

구분	내용
산업별 · 지역별	주요 산업별, 지역별, 위험유형별, 투자유형별 익스포저의 총합계액 산정 · 관리
거래상대방별	특정 거래상대방(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한 익스포저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점검 · 관리
관계자 거래	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와의 거래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와 별도로 관리
비금융계열사 출자	비금융부문 부실의 전이 가능성을 감안, 비금융계열사 출자액(개별사 및 합산액)을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

자료: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(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, 2018.06.28)

### • 금융그룹 집중위험의 반영 방안

구분	내용
모범기준 하	금융그룹별 집중위험을 <u>모니터링하되</u> , 필요자본 가산은 미적용
법 시행 이후	집중위험 한도초과분에 대해 필요자본 가산

자료: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(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, 2018.06.28)

## 5. 감독 방안(모범기준) – 자본적정성(전이위험)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전이위험은 그룹내 계열사·사업부문 등의 위험이 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평가(특히, 비금융사로부터의 전이위험에 중점)

- 평가 : 직접적 정량지표 산출이 어려운 만큼 전이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항목을 지표로 구성·평가(등급산출)하는 체계로 운영
- 평가체계 : [전이위험]  $\propto$  [①위험전이 가능성·크기  $\times$  ②위험노출액]
  - ① 위험전이 가능성·크기를 설명하는 대안지표들로 평가항목·지표 구성 → 평가 및 등급(1~5등급) 산정(위험전이 가능성·크기↑→ 평가등급↑)
  - ②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(총위험자산 or 최소요구자본)에 비례하여 필요자본에 가산
- 평가항목 : 3대 부문(상호연계성·이해상충가능성·위험관리체계) 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(정량지표 중심 + 정성지표)

전이위험 평가항목(예시)

평가부문	평가항목	비중
상호연계성	① 계열사 출자관계(10%)	35%
	② 내부거래 규모·의존도(15%)	
	③ 비금융계열사 부실화위험(10%)	
이해상충 가능성	④ 금융그룹 소유구조(15%)	35%
	⑤ 이해상충 방지정책(20%)	
위험관리 체계	⑥ 대표회사이사회권한·역할(20%)	30%
	⑦ 그룹리스크 정책·절차(10%)	

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(예시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(1안) 총위험자산	0.5%	1%	1.5%	2%	2.5%
(2안) 필요자본	5%	10%	15%	20%	25%

## 6. 감독 방안(모범기준) - 위험관리실태평가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**위험관리실태 평가는 금융그룹의 위험현황·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적 종합평가임.**

- **평가체계** : 4개 부문,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
  -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(5등급 15단계) 산출
  - \* 평가부문·평가항목은 국제기준(Joint Forum 주요원칙, 2012)을 참고하여 설정
  - \*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,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(일부 정량지표는 참고지표로서 활용)
- **평가결과 활용** :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리스크 관리에 활용
  - \* 미흡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(컨설팅, 개선권고 등)
  - \*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(4등급)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
- **평가주기** :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-3년에 1회 실시

### <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 >

1. 위험관리체계 (30%)	▪대표회사 이사회 권한·역할(20%) ▪리스크 정책 및 절차(10%)
2. 자본적정성 (20%)	▪자본구조(10%) ▪자본정책(10%)
3. 위험집중·내부거래 (20%)	▪위험집중(10%) ▪내부거래(10%)
4. 소유구조·이해상충 (30%)	▪소유구조(10%) ▪이해상충 방지체계(20%)

## 7. 감독 방안(모범규준) - 그룹위험 통합관리체계 구축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
### (감독 방안) 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 시스템 구축

#### 보고 · 공시체계 운영

-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 선정  
: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미래에셋대우, 현대캐피탈, DB손해보험
-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,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

#### 그룹위험 통합관리체계 운영

-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, 지휘·보고, 공시 체계를 통해 계열회사의 위험관리 업무를 점검 · 평가하는 등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통합할 필요
-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 설치 운영

#### 내부거래·위험편중 점검·관리

-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·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 관리
- 위기상황 시 금융계열사로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 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 마련

## 8. 그간의 성과 및 평가

Ⅱ 금융그룹 감독방안 소개 내용

**모범기준 제정 등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기초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,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**

- 모범기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용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기초적 기반 마련
  - (감독당국) 금융그룹 평가, 관리 등 감독당국의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및 역량 확보
  - (금융그룹)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구축
- 다만,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, 일부 개선과제의 검토가 필요
  - 제도의 구속력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뒷받침 될 필요
  -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감독당국의 전담조직 유지 필요
  -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의 보완 필요

---

# 목차

- I.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 배경
- II. 금융그룹 감독방안 주요 내용
- III.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



# 1. 금융그룹 감독제도 현황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

##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특징

-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(모범규준, 법)는 그룹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운용
    - 현행 모범규준상 감독실익이 적은 금융지주, 은행 모회사그룹, 특수은행, 실질적 동종금융그룹 등은 감독대상에서 제외
  - EU 등 여타 국가의 복합금융그룹감독제도(FICOD 등)는 부문별 그룹 감독을 받는 entity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감독
    - FICOD 등은 부문별 그룹 감독(sectoral supervision)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미 그룹규제를 받고 있는 2부문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합그룹 내 entity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감독
      - \* EU의 경우 은행, 금융투자회사로 이루어진 universal bank에 대해서는 Basel규제가, 보험업에 대해서는 Solvency규제가 적용
- 
-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도 EU, 일본, 호주의 복합금융그룹(Financial Conglomerate) 감독과 비교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
    - 현행 금융그룹 감독은 자본적정성 규제 위주로 수행

# 1. 금융그룹 감독제도 현황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 우리나라 금융그룹별 규제체계

- 다양한 금융그룹 유형에 대해 상이한 감독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 우려

	그룹 감독 여부	자본적정성안정방식	그룹차원 리스크 <sup>3)</sup> 규제	그룹차원 리스크 <sup>3)</sup> 추가자본 부과
은행지주	그룹감독	BIS기준 자기자본비율(연결)	규제	없음(리스크평가 등급 별 RWA 할증 가능).
비은행지주 <sup>1)</sup>	그룹감독	필요자본에 대한 적격자본	규제	없음
은행모회사그룹	개별업권감독	BIS기준 자기자본비율(연결)	무	없음
복합금융그룹 <sup>2)</sup>	그룹감독	필요자본에 대한 적격자본	규제	있음(법 제정 이후 부과 예정)

주 1) 메리츠금융지주, 한국투자금융지주

2) 금융지주, 은행 모회사 그룹 등 제외

3) 복잡성 및 interconnectedness로 인한 집중위험, 전이위험, 내부거래 등에 따른 위험



- 금융그룹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

## 2.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제도 현황

Ⅲ 개선방안 및 후과제

###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국제적 건전성감독 관련 규정

- EU 등의 복합금융그룹은 크게 2개의 국제적 건전성감독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.
- 동종금융그룹에 대한 감독(sectoral supervision)
  - 은행업에 대해서는 바젤 II 의 3 Pillar 제도
  - 보험업에 대해서는 Solvency II의 3 Pillar 제도
  - \* EU는2016년 Solvency II 를 도입하면서 바젤 II 의 3 Pillar제도와 유사하게 3 Pillar제도를 도입
- 은행, 보험 등 2부문(sector)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(Financial Conglomerate)
  - Joint Forum의 금융그룹 감독원칙(1999년, 2012년) : BCBS(은행), IOSCO(증권), IAIS(보험)
  - EU의 FICOD(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, 2002) 및 개정안인 FICOD I(2011)
  - \* 금융그룹 감독원칙과 FICOD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 중

### 3. Pillar Ⅱ 제도의 적용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후과제

#### 바젤 Ⅱ

##### ■ 바젤 Ⅱ 도입 배경 및 특징

(배경) 바젤 I 자기자본규제(1988년 도입)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은행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기자본의 정확한 산정 및 발전된 리스크 관리기법 사용에 어려움

(특징) 기존 바젤I에 비해 리스크 민감도가 높으며, 다양한 리스크 측정방식 중 은행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며, 리스크 측정방식의 운영도 자체방식 이용 가능

##### ■ 구성

- Pillar I(최저자본규제) : 은행의 신용,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자기자본을 동 위험가중자산의 8% 이상 적립하도록 규제
- Pillar Ⅱ(감독당국 점검) :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·측정·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,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 부과
- PillarⅢ(시장규율) : 은행의 리스크와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확충하여 시장참가자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강화 및 감독당국 규제 보완

### 3. Pillar Ⅱ 제도의 적용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후과제

#### Solvency Ⅱ

##### ■ solvency Ⅱ 도입 배경 및 특징

(배경) 유럽 회원국은 보험환경 변화로 기존 지급능력제도(solvency I)에 의한 재무건전성 감독에 한계

\* 보험환경 변화 : 글로벌화 및 겸업화 전략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필요, 발달한 금융공학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, 재무리스크 측정 모형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등 리스크 중심 경영 강화 필요

(특징) 보험계약자 보호를 주목적

위험기준 자본의 양적 요건, 가용자본의 질적 요건, 리스크관리 요건, 공시·보고 요건 등 규정

##### <표 > 솔벤시 Ⅱ의 기본 체계

1층(Pillar 1)양적요건	2층(Pillar 2)질적요인	3층(Pillar 3)보고 및 공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리스크 중심 자본 요건</li> <li>·표준모형</li> <li>·내부모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내부통제</li> <li>·리스크관리(ORSA)</li> <li>·감독당국의 점검(SRP)</li> <li>·자본확충(capital add-on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정기보고</li> <li>·정기공시(리스크관리 포함)</li> <li>·수시보고 및 수시공시</li> <li>·기타</li> </ul>

자료 : 장동식·김경환, 솔벤시 Ⅱ의 보고 및 공시체계와 시사점, 보험연구원, 2012

### 3. Pillar II 제도의 적용 검토

III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# Basel II와 Solvency II의 비교

	Basel II	SolvencyII
Pillar I	<p>감독기준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최저수준(8% 이상)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</p> <p>*은행의 신용,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산정</p>	<p>양적규제로서 요구자본량 및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양적요건을 규정</p> <p>* 요구자본은 지급능력요구자본(Solvency capital requirement: SCR)과 최소요구자본(Minimum capital requirement: MCR)으로 구성</p>
Pillar II	<p>필라 1으로 파악하지 못한 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 범위 및 리스크 관리상황(ICAAP)에 대해 점검하고, 평가등급에 따라 각 은행별로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(SREP)</p> <p>*금리·평판·전략리스크, 신용·운영 리스크 관련 잔여리스크(집중위험 등), 경기변동리스크</p>	<p>질적 규제로서 보험회사 자체의 리스크평가(Own Risk &amp; Solvency Assessment, ORSA) 및 감독당국의 점검(SRP) 등 양적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요건을 규정</p> <p>* 그룹내부거래(IGT), risk management 등</p>
Pillar III	<p>은행 등이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하여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공시제도</p>	<p>보험회사 재무상태의 투명성 확보 및 시장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감독당국 보고 및 시장공시 관련 요건을 규정</p>

### 3. Pillar II 제도의 적용 검토

III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# Pillar II는 ICAAP와 SREP로 구성

##### ■ Pillar II의 4개 원칙

- (원칙 ①) 은행은 ICAAP(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)를 구축·운영
- (원칙 ②) 감독당국은 ICAAP 적정성 평가(SREP, Supervisory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)
- (원칙 ③) 감독당국의 은행 별 차별적인 자본부과 권한 보유
- (원칙 ④) 적정자본 하락 방지 위한 감독조치 시행(미흡사항 관련 개선협약 체결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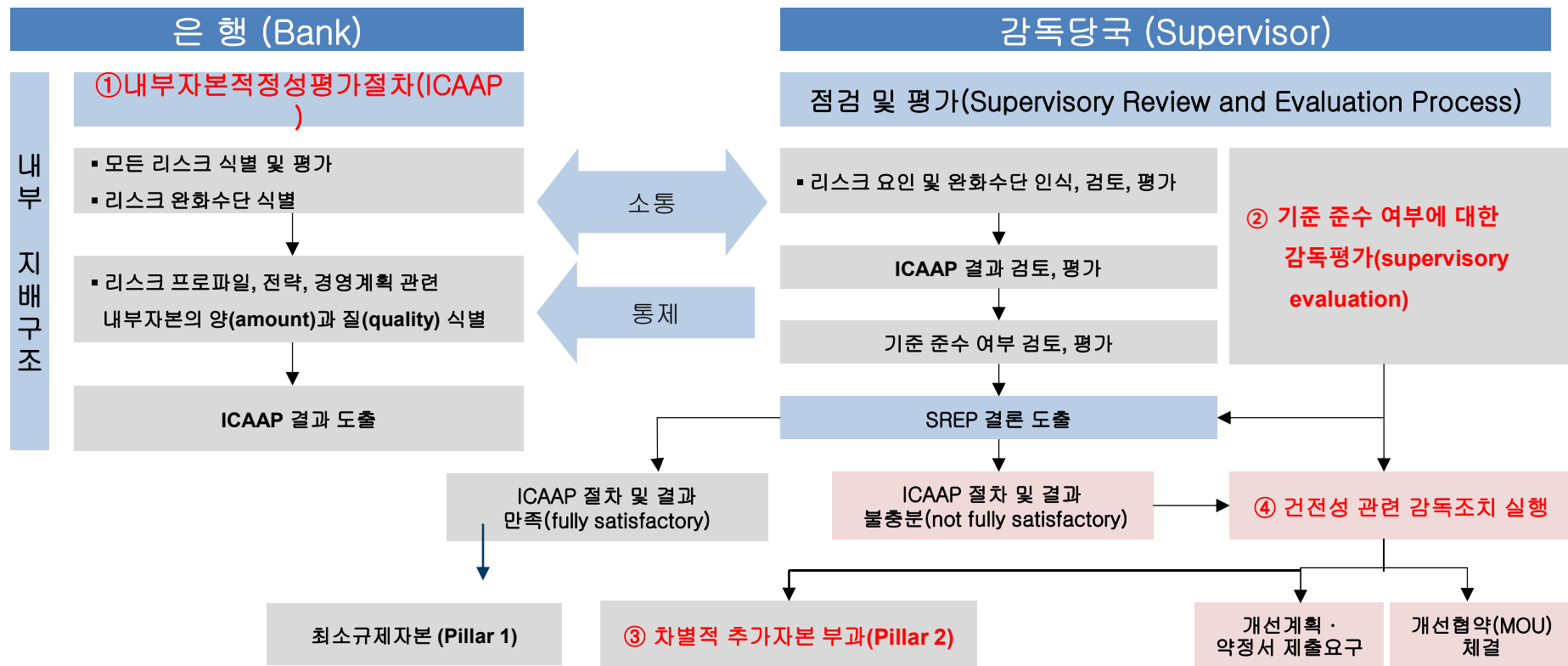
##### ■ ICAAP의 주요 요소

- 은행이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risk의 산정 및 적정 자기본 산출(식별 및 측정)
- 자본요구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mitigation 기법의 적용
-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
-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

### 3. Pillar II 제도의 적용 검토

III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# ICAAP와 SREP



참조 : CEBS,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upervisory Review Process under Pillar 2, 2006



### 3. Pillar II 제도의 적용 검토

III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#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PillarII와의 비교 및 과제

##### ■ 은행, 은행지주와의 비교

- 은행, 은행지주 :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관련 항목을 평가하여 **리스크 평가등급(5등급 15단계)**을 산출하고 3등급 중간단계 미달 시 RWA 할증 및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 기타 감독조치 가능
- 금융그룹감독 : Joint Forum 주요원칙(2012)을 참고하여 설정한 평가항목으로 금융그룹 **위험관리실태 평가등급**(5등급15단계)을 산정하여 4등급) 이하인 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

##### ● 국제적 기준과의 비교

- 국제적 기준에서의 PillarII는 은행 및 은행그룹이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·측정·관리하고 리스크 수준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 (ICAAP, SREP)
-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주로 평가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.



##### ■ 과제)

- 단기 : 금융그룹감독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험관리실태 평가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및 산정방법, 제재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차익 해소 필요
- 중장기 : 국제적 정합성 및 실질적 효과를 위해 금융회사는 ICAAP, 감독당국은 SREP를 도입하여야 하나 아직 금융회사 등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

## 4. Pillar Ⅲ 제도의 적용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 PillarⅢ 제도의 적용 : 공시 강화

#### 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

- 금융기관의 공시는 **시장 참가자**로 하여금 **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**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
-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금융업권별 각 협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권별 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름.
- 은행(은행 지주회사)의 경우 '16년 바젤기준에 비추어 공시범위가 미흡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은행 연합회의 '금융업경영 통일공시기준' 을 개정

#### ■ PillarⅢ 규제 보완의 필요성

-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(Pillar I, PillarⅡ) 규제만으로는 적시에 판단 및 통제하기 어려운 그룹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 통제하기 위한 목적
- Joint Forum의 금융그룹 감독원칙(2012)에서도 **금융그룹의 재무상황,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**는 시장규율에 중요하며, 접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룹의 연결기준 재무 상황 및 성과, 위험 익스포저, 위험관리 전략, 그리고 지배구조 정책 및 절차가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

#### ■ 과제

- 국내 금융그룹의 그룹 차원 리스크에 대한 PillarⅢ 규제 현황 및 취약점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
: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PillarⅢ 규제로 파악될 수 없거나 Pillar I, PillarⅡ 규제만으로는 적시에 통제 불가능한 그룹 위험에 대한 정보가 감독당국 또는 시장에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

## 5. 금융그룹 지배구조 규율 강화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 금융그룹 지배구조 규율 강화

- (필요성) 추진 중인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에 있어 자본적정성 부문이 여타 부문에 비해 강조됨에 따라 자본적정성 산정을 위한 기술적(technical)기법 개발에 치우친 측면
  - EU의 복합금융그룹감독지침(FICOD) 등 금융그룹감독 체계는 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, 지배구조, 리스크관리, 자본적정성 등으로 구성
  - 금융그룹감독방안에서 리스크관리는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이용

감독자의 권한	그룹차원의 종합적인 감독 수행에 필요한 권력, 권한 및 자원을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의 필요성 강조
감독자의 책임	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최소한의 건전성기준을 실시하고,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의 감독기구의 역할 및 의무와 관련된 새로운 원칙을 설정
지배구조	복합금융그룹의 경영 및 지배와 관련된 임원 등의 적격성 관련 원칙을 통해 적격성 원칙의 중요성 재확인 강조
자본적정성 및 유동성	그룹 전반 리스크에 주목하여 비규제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감독자 역할 강조
리스크관리	그룹단위 리스크 집중과 내부거래 관리·보고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의 필요성 강조

## 5. 금융그룹 지배구조 규율 강화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 금융그룹 지배구조 규율 강화

#### (세부과제)

- 향후 금융그룹 감독 방안 마련 시 자본적정성, 리스크관리 외에 지배구조, 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 등도 중요성 및 여타 금융그룹 감독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

#### - (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)

- 복합금융그룹은 은행업, 보험업, 증권업 중 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, 이에 대한 감독은 부문별 감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**각 부문 감독부서 간의 조정**을 위한 감독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
- 더욱이 국내 금융그룹의 해외진출 및 해외 금융그룹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국내 금융기관 주재국 및 **해외금융기관 진출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환**을 위한 관계 설정도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

#### - (지배구조 및 위험관리)

- 자본적정성 준수는 금융그룹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 **사후적으로 손실을 감당**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반면,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는 금융그룹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관리**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모두 중요

## 6.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 전이위험의 별도 평가 및 자본규제 반영 여부

- 현황) 전이위험을 별도로 평가하고 위험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
- 전이위험 별도 평가의 장단점
  - 장점 : • 그룹차원의 위험은 개별 금융회사 단위 및 현실화 이전에 쉽게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를 통해 미리 파악하여 대비 가능
    - 국제적 건전성규제인 바젤의 PillarⅡ에서도 개별 금융기관 및 그룹의 위험을 식별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
  - 단점 : • 전이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위험액 산정이 어려움
    - 평가대상인 복합금융그룹과 대상이 아닌 금융지주그룹과의 규제형평성 차이
- 전이위험의 자본규제 반영의 장단점
  - 장점 : • 그룹 내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적립함으로써 전이위험 예방유인을 제공
    - 손실발생 시 완충역할을 하여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보호
    -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
  - 단점 : • 전이위험의 위험액 산정이 어려워 전이위험과 추가로 부과하는 자본의 양 사이의 괴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성이 낮을 가능성
    - 전이위험만을 따로 측정하여 자본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에 없는 제도로써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.
- 검토의견) 현재 방법 유지

## 6.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

###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의 분리평가 여부

- 현황)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을 분리하여 평가
- 집중위험과의 분리평가 장단점
  - 장점 :
    - 위험유형별로, 특히 집중위험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집중위험 관리 가능
  - 단점 :
    - 그룹위험이 집중 또는 전이위험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위험에 대한 중복평가 가능성
    - 현재 전이위험은 모범규준 정의상 집중위험을 제외한 그룹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포함한 관계회사(affiliate) 간의 상호연계성, 이해상충가능성 및 위험관리체계 취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룹위험을 포함함.
    - 그룹위험 중 다른 모든 그룹위험은 포괄하여 전이위험으로 평가하는 반면, 집중위험만 별도로 평가할 필요성 불확실.
    -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자본에 대한 추가자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나,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려움
- 검토의견) 위험을 유형별(집중 전이위험)로 나누어 평가 반영하던 기존 방식을 다양한 그룹위험을 단일의 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

## 6.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

### 전이위험의 평가 등급 세분화

- **현황) 현 전이위험 평가등급은 5등급 체계로 분류**
  - 전이위험 평가는 직접적 정량지표 산출이 어려운 만큼 전이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항목을 지표로 구성.평가(등급산출)하는 체계로 운영



- **검토의견) 현재의 등급부여 방식(5단계)은 보다 세분화할 필요**
  - 극단적인 그룹위험 산출치에 대한 처리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, 자본적정성에 있어 그룹위험이 미치는 변별력을 5단계에 비해 더욱 높이는 효과
  - 평가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은행, 은행지주회사  
의 위험관리체계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에서도 5등급 15단계 체계를 사용

감사합니다.



## Pillar Ⅱ : 감독당국 점검

### ■ 목적

- 은행이 영업상의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뿐만 아니라, 은행 스스로 보다 우수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개발 활용토록 촉진하기 위함.

### ■ 4대 원칙

- 원칙 1 : 은행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수준에 맞는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 관리하는 내부절차(ICAAP)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.
  - \* Pillar I에서 완전히 감안하지 못한 잔여리스크(예: 편중리스크), Pillar I에서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(예: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, 전략리스크, 평판리스크), 은행의 외부 요소(예: 경기순환주기 효과) 등을 모두 감안한 리스크임.
- 원칙 2 : 감독당국은 이러한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 확충요구를 포함한 감독조치를 시행하여야 함.
- 원칙 3 :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에 대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(8%)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.
- 원칙 4 :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적정한 수준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감독조치를 시행하여야 함.

구분	주요 내용
Pillar I 리스크	신용, 시장, 운영리스크
Pillar II 리스크	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, 유동성리스크,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
Pillar I 잔여리스크	신용리스크 관련(편중리스크, 자산유동화관련, 신용경감기법), 운영리스크관련 잔여리스크

자료 : 금융감독원, 알기쉬운 신 BIS협약 II, 2006

# 1. 금융그룹감독제도 특징

Ⅲ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



## 1 필라2 리스크 평가 항목

계량평가 (가중치 30%, 평가항목 14개)		비계량평가 (가중치 70%, 평가항목 8개)	
총합 (15%)	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비율	자본적정성 (30%)	• 리스크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 적정성 ( 내부자본 적정성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/ 리스크 인식 / 통합 위기상황분석 운영 )
	위험조정자본이익률		
신용 (50%)	익스포저 대비 신용리스크 규모 비율	자산건전성 (30%)	•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(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/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/ 신용리스크 한도설정·관리 / 여신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)  • 신용리스크 인식·측정·평가 ( 신용리스크 데이터 관리 / 신용리스크 위기상황분석 등)
	자기자본 대비 신용리스크 규모 비율		
	장외파생상품의 위험가중자산 비율		
신용편중 (6%)	자기자본 대비 신용편중리스크 비율	유동성 (10%)	•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(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/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이사회 역할 / 자금조달 다변화 추진 등)  •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(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/ 비상자금조달계획 타당성 / 위기상황분석 사후관리)
유동성 (10%)	유동성 커버리지 비율		
	외화유동성 비율		
	원화예대율		
	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		
시장 (5%)	자기자본 대비 시장리스크 규모 비율		
운영 (7%)	자기자본 대비 운영리스크 규모 비율		
금리 (7%)	자기자본 대비 금리 EaR 비율		
	자기자본 대비 금리 VaR 비율		

## 2 필라2 리스크 평가 등급

1등급			2등급			3등급		4등급			5등급			
+	0	-	+	0	-	+	0	-	+	0	-	+	0	-
RWA 할증								1%	3%	5%	7%	10%	15%	20%

## 6.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

### 전이위험의 의미 : 모범규준 및 전이위험 평가모형 초안 간 차이

- 현황) 전이위험의 의미가 모범규준과 전이위험 평가모형에서 상이하게 정의
- 모범규준 상 전이위험
  - 그룹 내 관계회사(affiliate) 간의 상호연계성, 이해상충 가능성 및 위험관리체계 취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그룹 위험을 포괄하는 의미에 가까움
  - 기존 문헌에서 전이위험을 정의하는 일부 시도에서도 모든 그룹 내 계열사 간 위험의 전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: 예를 들어 전이위험은 금융그룹에 속한 어느 계열사의 부실 및 지불 불능이 다른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위험
- 전이위험 평가모형 초안
  - 전이위험 평가모형의 평가항목은 상호연계성, 이해상충가능성, 위험관리체계의 3대 부문으로 구성
  - 상호연계성 및 이해상충가능성 부문은 비금융 계열회사의 부실이 금융계열회사로 전이되는 위험에만 집중함에 따라 현 전이위험은 주로 비금융사로부터의 전이위험 평가에 중점
  - 반면, 위험관리체계는 금융 및 비금융 계열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평가

## 6.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검토

Ⅲ 개선방안 및 중점 과제

### 전이위험의 의미 : 모범규준 및 전이위험 평가모형 초안 간 차이

- 전이위험에 금융계열사 간 전이위험 포함 시 장단점
  - **장점** : • 평가대상 3대 부문이 모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일관성 달성
    - 전이위험 평가모형과 모범규준의 정의에서의 불일치 해소
  - **단점** : •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경우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도 금융그룹(금융 및 비금융 계열사 포함)의 전이위험이 평가됨에 따라 해당 위험이 중복 평가될 우려
    -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계열회사 간 전이위험에 대해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RWA가 할증되지 않음에 따라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될 우려
- 검토의견) 자본적정성 평가 시 전이위험은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위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,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안 검토
  - **장점** : • 자본적정성 평가 시 전이위험과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의 측정 대상을 차별화 가능
    - 금융지주회사그룹에서의 리스크평가와의 규제차익 문제 해소 가능
  - 추가조치 필요 사항
    - 전이위험에 대한 정의 수정 필요
    - 전이위험 평가 모형의 경우 상호연계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평가 항목은 유지가능하나 위험관리 체계의 평가항목은 재검토 필요